

여행서사의 인지서사학적 접근(2)*

- 윤후명의 <여우사냥>을 중심으로

황 국 명**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범주적 대인지각과 마음읽기 |
| 2. 여행도식과 전경화 전략 | 5. 자유주의자의 취약성과 공간 전유 |
| 3. 인지적 직시와 예각화 전략 | 6.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행서사의 작중인물이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전략 혹은 인식의 지도그리기를 해명하고 이로써 서사에 대한 인지서사학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윤후명의 <여우사냥>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에서 러시아로의 당당한 여행을 강조한 작중인물의 인지전략은 배경과 경로 요소를 전경화한다. 둘째, 작중인물은 하향식 인지과정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이데올로기적 단층을 예각화하고, 이로써 이동 경험에 수반된 인식의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셋째, 작중인물의 범주적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9-327-A00439).”

** 인제대 한국학부 교수 · 한국문화와문화전략연구소

대인지각은 위협하다는 인지적 평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편향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타인을 경계하는 행동특성을 드러낸다. 넷째, 작중인물은 사실의 숲을 상상의 숲으로 전유함으로써 자유주의자로서의 취약성을 상상적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서술자의 인식의 지도그리기가 함축한 정치적 의미이다.

주제어 : 마음읽기, <여우사냥>, 여행도식, 여행서사, 예각화, 운후명, 인식의 지도그리기, 인지서사학, 인지심리학, 전경화, 전유, 직시, 진화심리학

1. 들머리

본 연구는 여행서사의 인지적 차원을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두며, 이런 작업을 통해 서사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이론화, 즉 인지서사학(cognitive narratology)의 성립을 모색하고자 한다.¹⁾ 특히 서사주인공이 세계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혹은 해석상의 선택과 그것의 심적 표상을 인지전략 혹은 인식의 지도그리기(cognitive mapping)라 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²⁾

- 1) 본 연구는 인간인지와 서사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서사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이론화하려는 기획의 일부이며, 「여행서사의 인지서사학적 접근」(1)(근간)에 제시되는 개념과 방법을 작품 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 2) 한국현대시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지과학의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서사텍스트의 인지적 차원을 해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용호, 『서사로 읽는 서사학-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장일구, 「은유의 문화적 구성 역할-『혼불』을 사례로 한 시론」(『시학과 언어학』, 15호, 2008), 135-167쪽, 김원희, 「문학교육을 위한 백신에 소설세계의 인지론적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 41집, 2010, 310-326쪽, 「강경에 『소금』의 개념적 은유 접근 방식」(『인문학연구』 41집, 2011), 340-363쪽. 이들 연구는 텍스트의 단서와 독자의 인지·심리 사이의 상호작용을

본고에서 여행서사는 여행, 이동, 이주, 이산, 유랑 등이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으로 중심모티프로 작용하고 여행주체, 출발지와 도착지, 여행의 경로가 표상되어 있는 작품을 의미한다.³⁾ 여행서사는 작중인물의 공간적 이동뿐 아니라 낯선 장소에 대한 탐구, 다른 문화에 대한 지각, 타자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런 인식과정에서 여행주체는 세계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문화 특유의 지식을 드러낼 수 있다.⁴⁾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행소설의 인물이 특정한 인지전략에 따라 이동사건을 이해하며, 그의 인지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지향적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오늘날 인지(認知)는 심적 삶의 합리적 측면뿐 아니라 감정과 상상을 포함한 모든 심적 과정을 가리킨다.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인지인류학, 인지언어학 등 인지과학의 공통 관심사는 인간의 정보처리이다. 말하자면 인간마음의 작용, 즉 인지과정은 정보처리과정이라는 것이다.⁵⁾

주목한다. 그래서 인지서사학의 연구대상으로 독자의 서사이해, 즉 제시된 이야기세계에 대한 독자의 심적 재구성을 들기도 한다. D.Herman, *Story Logic*(Univ. of Nebraska Press, 2003), pp.1-7. 그러나 작중인물도 인간적인 신념, 욕망, 감정, 지각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작중인물을 인지주체로 삼고 그의 인지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 3) 본고에서 여행서사는 여행소설과 교환가능한 개념이다. 이런 개념 규정은 이미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설’이라는 용어 대신 ‘서사’개념을 사용한 것은 언어적/비언어적 서사, 허구적/비허구적 서사, 문학적/비문학적 서사를 포괄하기 위함이다.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소설』(태학사, 2006), 17-41쪽. 「2000년대 여행서사 속의 근대극복과 타자적 사유」(『내러티브』, 15호, 2010), 26-29쪽.
- 4) 바흐친에 의하면, 여행소설에서 소설가의 예술적 중심은 인물의 변별적 특성이 아니라 그의 공간적 이동이나 무모한 모험에 있다. 그러니까 여행소설의 작가는 세계의 공간적 다양성과 사회의 정적인 차이(시골, 도시, 문화, 민족성, 낯선 사회 집단 및 그들의 삶의 방식 등)에 초점을 두며, 이 때문에 여행소설은 역사적 시간을 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역사적 하위갈래로서의 모험소설이나 피카레스크 소설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M.M.Bakhtin, “The Bildungsroman and Its Signification in the History of realism(Toward a Historical Typology of the Novel)”,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Univ. of Texas Press, 1986), pp.10-11.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인지과정은 기저장된 일련의 선행 경험(사건, 상황)에 조회하여 현재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다. 과거 경험을 저장하는 지식구조는 도식(스키마, schema)이라 지칭된다. 그러니까 인지 도식은 문제의 상황에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고 일상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에서 도출된 개념적 구조이자 상투적 인지모형(cognitive model)이라 할 수 있다.⁶⁾ 이런 인지모형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인지이론에 의하면, 도식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공동체에 의해 특정한 형식으로 마음에 저장된 것이다.⁷⁾ 사회문화적으로 구성, 제약되다 는 맥락의존성 때문에, 인지모형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모형(cultural model)으로 이해된다.⁸⁾

5) 이정모, 『인지심리학』(아카넷, 2003, 1판3쇄), 19-23쪽.

6) 연구자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인지, 곧 정보처리의 토대로 기능하는 도식은 크게 둘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째, 동적 도식은 사건의 정형화된 연쇄, 사건의 연속과 순서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구조이며 사건도식(event schemas) 혹은 스크립트(scripts)로 이해된다. 둘째, 정적 도식은 정형화된 사태나 상황, 장면과 장소에 관한 지식의 조직으로 여겨지며 장면도식(scene schemas)이라고도 한다. 위아래, 좌우, 다음, 안팎, 앞뒤와 같은 공간관계로 구성되며 때로는 프레임(frames)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동적인 사건도식은 과정모델이고 정적인 장면도식은 공간모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도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Ronald W.Casson, "Schemata in Cognitive Anthropology"(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12, 1983), p.429. Jean Matter Mandler, *Stories, Scripts, and Scenes: Aspects of Schema Theory*(Psychology Press, 1984), pp.13-15, 35.

7) Patrick Colm Hogan, *Cognitive Science, Literature, and the Arts*(Routledge, 2003), pp.44-45.

8) 피터 스톡웰, 『인지시학개론』(이정화, 서소아 역, 한국문화사, 2009), 66-67, 140-141쪽. 인지모형은 어떤 분야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고 저장한 문맥의 총합이며, 문화모형은 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인지모형으로 간주된다. 프리드리히 옹거러·한스-요르그 슈미트, 『인지언어학개론』(임지룡·김동환 역, 태학사, 2010), 86-97쪽. 인지변수가 사회적 기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지서사학은 이 데올로기 비판의 견지에서 서사의 인지적 차원을 분석할 수 있다. Jens Eder, "Narratology and Cognitive Reception Theories", Tom Kindt, Hans-Harald Müller(eds.), *What Is Narratology*(Walter de Gruyter, 2003), pp.278-293.

이런 맥락에서, 서사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인지도식, 인지모형, 문화 모형 등의 자질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인지과학의 입장처럼, 인간의 인지가 신체화된 것임을 승인한다면, 작중인물의 세계경험 이해나 정서적인 반응에 생물학적으로 보편적인 토대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⁹⁾ 달리 말해, 다양한 인지메커니즘의 기능을 진화론적 견지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심리학에서 육화된 마음이 정보처리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진화심리학은 인간 마음을 조상인류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한 것, 즉 적응된 마음(adapted mind)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신체화된 인지는 적응된 인지의 특정한 발현으로 여겨진다.¹⁰⁾ 적응관련 문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경향 사이의 명백한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화심리학의 발견을 서사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에 본고는 인지서사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진화심리학과 생산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인지진화론적 서사학의 가능성도 전망한다.

인식의 지도는 위에서 언급한 지식구조, 즉 현재의 경험을 이해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인지모형과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저장된 지식구조라는 의미에서 인지모형은 과거형이라 할 수 있다. 작중인물의 정보처리와 심적 표상은 이런 과거형 인지모형에 큰 영향을 받지만, 직면하는 그때그때의 감각적인 현실에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작중인물의 인지활동은 현재형이다. 이런 현재적 인지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인식의 지도그리기라는 용어이다.¹²⁾

9) 이정모, 같은 책, 105-107쪽. 상하, 좌우, 전후 등이 신체운동과 관련된다면, 공간 경험의 생물학적 토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1999, 초판2쇄), 17-18쪽.

10) 데이비드 M. 버스, 『마음의 기원: 진화심리학』(김교현·권선중·이홍표 역, 나노미디어, 2005), 55-58, 540-542쪽.

11) Joseph Carroll, *Reading Human Nature: Darwinism in Theory and Practice*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2011)(SUNY.Press, 2011, pp.6-9, 18.

12)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지역에 대한 심적 지도 혹은 공간지식은 과

인식의 지도(그리기)는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의미로 활용된다.¹³⁾ 독서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경우, 서사세계의 전체적 윤곽에 대한 독자의 공간화를 인식의 지도그리기라고 부른다.¹⁴⁾ 다른 한편, 도시환경을 향해하기 위한 심적 지도라는 린치의 논의로부터 암시를 받은 제임슨에 의하면, 인식의 지도그리기는 지구적 자본주의 초공간(hyperspace)에 대처하는 주체의 방법이다. 달리 말해, 인식의 지도는 이 세계 내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주체적으로 그리는 심적 지도이다.¹⁵⁾ 진화론적 관점에서, 문학적 표상을 포함한 모든 표상은 인식의 지도그리기 형식이며, 이 인지도는 공간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응의 연장이라고 이해된다.¹⁶⁾ 이런 이해는 능동적인 주체에게 전략적 정치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도그리기’

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여행이나 군사작전의 경우처럼, 심적 지도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올바로 인도하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하름 데 블레이, 『분노의 지리학』(유나영 역, 천지인, 2010, 초판 5쇄), 69-74쪽.

- 13) 원래 인식의 지도는 미로 문제를 해결하고 음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쥐의 공간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지만, 톨먼, 린치, 투안 등의 논자에 의해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된다. 논자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인식의 지도는 환경 전체에 놓인 주체의 위치에 대한 주관적 지도로 이해된다. Marie-Laure Ryan, “Cognitive Maps and the Construction of Narrative Space”, D.Herman (ed.), *Narrative Theory and Cognitive Sciences*(CSLI, 2003), pp.218-237.
- 14) D.Herman, “Introduction”, D.Herman(ed.), 같은 책, pp.21-22.
- 15) 제임슨에 의하면, 공간적으로 지도를 그릴 수 없는 것이 도시경험에 타격이 되듯이, 사회적으로 인식의 지도를 그릴 수 없음은 정치경험에 큰 타격을 준다. 그래서 인식의 지도그리기는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저항의 문화적 전략이 된다. Jameson, “Cognitive Mapping”, C.Nelson and L.Grossberg(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Univ. of Illinois Press, 1988), pp.347-358.
- 16) 진화론적 페라다임이 인문과학 전 영역에 지적 혁명을 일으킨다고 강조한 캐롤은 문학이론으로 통합될 수 있는 진화생물학적 관념 네 가지를 든다. 첫째,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둘째, 지각, 감정, 추리 등 생래적인 심적 구조는 자연선택의 적응과정을 통해 진화이다. 셋째, 인간의 동기는 포괄적 적응도(fitness)의 원리, 즉 성적 결합과 재생산의 원리에 의해 제어된다. 넷째, 모든 표상은 인식의 지도그리기이다. Joseph Carroll, *Evolution and Literary Theory* (Univ.of Missouri Press, 1995), pp.1-3.

라는 인지활동은 메타포가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내에 유기체를 설정하는 주요 인지기능의 확대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인식의 지도그리기는 공간과 주체의 관계, 장소와 장소 사이의 관계, 세계 속에 놓인 주체 위치 등에 대한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지도는 지리적 실체에 대해 집단적 평가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주체의 주관적 해석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지도그리기는 왜곡된 것일 수 있다. 본고에서 인식의 지도그리기에 함축된 정치적 의미를 탐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과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국가 경계를 넘어 해외로 공간을 확장한 윤후명의 <여우사냥>¹⁷⁾을 대상으로 삼고, 작중인물의 인식의 지도그리기, 즉 세계정보를 처리하는 전략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경험 및 행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인지와 감정, 행동을 상호연관 속에 두는 것은 모든 인지과정, 세계에 대한 지식과 상상이 세계와 인지주체의 신체화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여행도식과 전경화 전략

여행에 관한 구조화된 일반지식, 즉 여행도식은 여행자, 노정, 출발지, 체류지, 종착점을 구조요소로 삼는다.¹⁸⁾ 이렇게 보면, ‘~에서 ~으로’의 형태로 구조화되는 길(paths)도식은 여행도식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행을 이동경험, 즉 이동사건으로 본 경우, 중요한 인지적 성분으로 전경, 배경, 경로, 이동을 들기도 한다.¹⁹⁾ <여우 사냥>의 서술자가

17) 윤후명, <여우사냥>, 『한국소설문학대계 78』(동아출판사, 1995), 이하 인용 참고 시 본문에 쪽수만 표시함.

18) G.레이코프·M.터너, 『시와 인지』(이기우·양병호 역, 한국문화사, 1996), 88, 135쪽.

19) 여행에 대한 구조를 공급하는 개념들로 출발지, 경계표, 길, 경로, 행선지 등 명

드러내는 이동경험도 이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자 ‘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2년 12월 러시아로 여행하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2년 전 러시아로 떠난 친구를 만나 북쪽 호숫가로 여우사냥을 다녀온다. 서술자의 최종 목적지는 프랑스였지만, 그의 회상은 러시아에서의 경험만을 전면화한다. “저 북방 나라”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조차 없”(461)고, “얼마 전까지도 적군(赤軍)”이었던 사람들과 여우사냥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505)이었던 것처럼, 작중인물에게 러시아 여행은 경계를 위반하는 대사건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동사건에서 인물의 주목을 끌며 전경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꼭 10년 전에 외국에 난생 처음 나갔다 돌아오던 때는 비행기가 소련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한 관계로 알래스카를 거쳐 이른바 로미오20 항로를 날아왔었다. (...중략...)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자 과연 세월은 바뀌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비행기는 비록 중국이나 북한을 지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시베리아 동토지대를 지나고 우랄 산맥을 넘어서 북유럽 평원을 날아갔다.(471)

이 인용문을 “나는 동토지대와 우랄산맥을 넘어 한국(서울)에서 러시아(모스크바)로 날아갔다.”로 단순화할 수 있다. 탄도체(나), 지표(동토지대와 우랄산맥), 경로(한국에서 러시아로)라는 여행도식²⁰⁾에서 서술자가 주목하는 것은 방향에 대한 참조점인 지표(landmark), 곧 배경과 ‘한국’과 ‘러시아’라는 경로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알래스카를 거치는 옛 항로 대신 동토지대를 ‘당당하게’ 넘어간 사실을 강조하고, 이 당당한 경계넘기는 소련의 해체, 레닌 이데올로기의 몰락과 무관

사유와 출발, 전진, 답과, 경로 따름, 도착 등 행동 개념을 든다. 그래서 이동 자체를 여행의 인지적 중심성분으로 보는 것이다. 부가성분으로는 이동 방식과 원인을 든다. 프리드리히 옹거러·한스-요르그 슈미트, 같은 책, 179, 302-306, 319쪽.

20) 피터 스톡웰, 같은 책, 40쪽.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체계가 대상에 대한 지각 노력을 최소화, 자동화, 관습화하고 이로써 안정적이고 일관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면, 서술자가 이동하는 배경과 경로 성분은 해외여행에 관한 그의 관습적 인지모형을 일탈한 낮은 정보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서술자의 러시아 여행은 그의 관습적인 인지를 방해하는 비전형적 사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배경과 경로 성분을 선택적으로 주목한 것이다. 이처럼 당당한 월경(越境)을 전경화함으로써, 그런 경계넘기를 가능하게 한 정보는 배경으로 밀려난다. 따라서 서술자는 자신을 실어 나른 그 새로운 항로가 자연지리의 지도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는 정치적 지도임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친구와의 여우사냥이 “예기치” 못한 일인 것처럼(462), 러시아의 대평원을 이동하는 여우사냥은 서술자 나에게 비일상적 위협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그가 기억 저장하고 있는 거리에 대한 선행경험은 “광활한 벌판길”(479)에서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²¹⁾ 그래서 원근 거리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지모형의 차이는 서술자의 마음에 저장된 ‘근교’ 지식과 충돌(477)할 수밖에 없다. 거리를 가늠하는 서술자의 인지모델이 러시아의 광활한 공간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그는 공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몸이 놓인 위치를 개념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물론 지도를 보고 있지만, 그는 멀리 뻗어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없고(481), 얼마나 더 달려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 없다(483). ‘어디로’라는 말이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를 암시하듯이, 사냥에 나선 서술자는 사냥꾼에게 필요한 공간과 제, 즉 방향설정과 유지, 거리 가늠 등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²²⁾

21) 이-푸 투안에 의하면, 추상적 무차별적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면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 그래서 장소(집, 고향, 고국)는 안전이나 안정과 관련된다. 이와 달리, 대평원과 같은 공간으로의 이동은 개방과 자유뿐 아니라 위협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15-19쪽.

서술자가 이동하는 내내 악몽 같은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명확한 공간 관계를 개념화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일 것이다. 서술자가 사냥지에 이르는 동안, 그리고 귀국한 이후 러시아 여행을 회상하면서 갈리나 나무의 빨간 열매(461,481,502)만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공간과제 처리능력은 고교시절 원예반 출신답게 채집자의 능력에 가깝다고 하겠다.²³⁾

3. 인지적 직시와 예각화 전략

러시아에서 서술자의 관습적인 인지과정이 방해를 받지만, 그런 장애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항상적인 인지모델이 있음을 나타낸다. 북쪽 호숫가로 향하면서 거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그의 인지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서술자는 낯선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서술자의 정보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작품에 현저하게 강조되어 있는 직시표현을 주목할 만하다.

우리와는 도무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조차 없으리라 했던 저들(461)
이런 비장한 심정은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들릴 테지만 그때로서는 너
무도 절박한 것이었다.(478)
그들이 누구이며, 거기가 어디인가 말이다.(491)

- 22) 실버만의 사냥꾼-채집자 이론에 의하면, 남성은 수렵에 적응하였다. 그래서 남성은 방향설정 능력, 먼 거리를 개념적으로 가늠하는 능력,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귀가하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이다. 낯선 지역에서 이동을 요구하는 공간과제에 우수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채집에 적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사물들의 공간적 배열과 위치, 사물들 사이의 공간적 관련성, 사물과 자신의 위치 등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데 월등한 능력을 발휘한다. 데이비드 M. 버스, 같은 책, 133-134쪽.
- 23) 원시수렵민은 장소에 고착된 농민보다 공간기술, 공간지식이 훨씬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128쪽.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여우사냥>에 우리/그들, 지금/그때, 여기/거기 등과 같은 지각적 시공간적 직시가 강조적으로 드러난다.²⁴⁾ 직시 표현(deixis)이란 해당 표현의 지시대상이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서술자와 피서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등 비언어적 상황이나 관계를 참고해야 하는 언어 요소를 가리킨다.²⁵⁾ 인지적 관점에서 직시는 어떤 상황과의 관계 속에 놓인 지각자의 위치감을 포함하면서 그 상황의 한가운데에 지각하는 중심 ‘나’가 있음을 암시한다.²⁶⁾ 이런 중심을 직시의 기점(deictic center)이라 하며, 직시의 기점은 직시표현을 해석할 참조점으로 기능한다.²⁷⁾ 그러니까 지금(현재) 여기(한국)의 서술자(나)가 작품 내의 상황을 인식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레닌의 은신처와 호숫가로 가면서 ‘왼쪽’ ‘오른쪽’이라 한 것도 서술자가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한 방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술자가 자신을 인식의 기점으로 표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그의 인지모델에서 ‘중심-주변’ 도식이 근간이라 할 만하다. 러시아는 “문화와 관습이 다른” “남의 나라”(477)라고 하거니와, 서술자는 자신을 지각중심으로 삼고 이에 지탱하여 자아와 타자,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경계짓기는 여우사냥을 위해 출발하면서 서술자가 친구에게 “포괄적 의미”를 담아 ‘위협’하지 않을까를 묻는 데서도 드러난다. 물론 위협하다는 물증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불안한 상황이나 한국인에 관한 터무니없는 풍문이 서술자의 마음에 공포의

24) 직시범주로 지각적 공간적 시간적 관계적 텍스트적 합성적 직시를 들 수 있다. 피터 스톡웰, 같은 책, 85-91쪽.

25) 나, 너, 우리, 이, 그, 지금, 여기, 그때, 거기, 위, 아래 등과 같은 직시표현에 대한 해석은 언어외적인 상황에 의존한다. 말하자면 직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등 발화 맥락과 관련하여 지시대상이 결정되는 표현이다. David Herman, *Story Logic*, pp.331-332, 346-347 참조.

26) Reuven Tsur,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Poetics*(Sussex Academy Press, 2008), pp.610-612.

27) David Herman, *Story Logic*, p.15.

그림자를 드리운 바도 있지만, 위협하다는 인지적 평가의 근본 배경은 거기가 러시아라는 데 있다.

왕래가 무척 빈번해진 최근에 와서는 이런 느낌은 그야말로 촌티가 난다고도 말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갖 수교를 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곳은 미지의 나라였다. 우리에게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말이다. 지금껏 우리는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 침예하게 대치하고 있으며, 예전에 북쪽의 후견자 노릇을 하던 그 붉은 소련을 위해 외치던 만세라는 뜻의 러시아 말 ‘우라’가 나이 든 사람들의 귀에는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는 게 아니던가 말이다.(469)

작중인물에게 러시아는 미지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에게 러시아가 전적으로 ‘미지의 나라’일 수 없다. 위 인용에 노년층의 경험담이 투사되어 있는 것처럼, 네댓 살의 어린나이에 6·25전쟁을 겪었던 인물에게도 “붉은 군대의 만행은 귀에 익은 것”이었다. 닥치는 대로 약탈과 겁탈을 서슴지 않고, 먹는 빵을 ‘홀레바리’라고 하니 “그들이 홀레불기를 얼마나 밝히겠느냐”(470)는 인지적 고정관념이 그의 의식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다. 따라서 여우사냥을 나서며 위협하다는 상황인식은 러시아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기억 저장된 지식에 근거한다. 안내자로 나선 퇴역군인들에 대한 ‘의구심’의 ‘바탕’에 도사린 것도 “그 이념의 세계”(486)이다. 그러므로 서술자에게 러시아는 ‘미지의 기지’인 셈이다.

또 문제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달리 말해, “러시아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느냐”(470)에 있다고 할 때, 이는 “우리에게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물음처럼 무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직시의 중심인 서술자는 문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이들 물음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타자(러시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혁명의 흔적조차도 엿볼 수 없는 혁명 유적지는 서글프기조차 한 곳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역사의 실체란 말인가. 살아 있다는 그 사실밖에 역사의 실체는 허상이란 말인가. 과연 그렇게밖에 아닐 것인가 하고 내 관념 앞에 나는 허둥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저 레닌의 후계자들은 무엇 때문에 극동의 작은 나라에까지 엄청난 비극을 강요했단 말인가.(475)

위 진술은 ‘무엇 때문에’라는 원인에 대한 탐구를 배경 속에 두고 남북 대치에 책임이 있는, “북쪽의 후견자”인 러시아가 한국인에게 강요한 비극적 결과를 전경화한다.²⁸⁾ 극동의 작은 나라에 ‘비극’을 강요했다는 인지적 평가로 볼 때, 서술자의 인지방식이 기저장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하향식 모델임이 분명하고, 이런 하향식 공간정보처리가 현저한 직시표현의 근간임을 알겠다.²⁹⁾ 작중서술자는 하향식 인지과정을 통해 국제(國體)의 이데올로기적 단층, 한국과 러시아의 차이를 예각화하고, 이로써 이동경험에 수반된 인식의 불확실성에 대처한 것이다.

우리/그들의 이분법적 참조틀과 예각화 전략에 따라 서술자는 공간에 대한 자기중심적 호오관념을 드러낸다.³⁰⁾ 혁명, 역사, 이데올로기는 위

28) 여기서 서술자의 의도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원인보다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원으로 거슬러 사유하는 계몽적 역사의식과 변별된다. 서술자의 인식은 오히려 역사화를 거부하는 쪽에 가깝고, 역사의 일반성에 대한 낭만주의적 시각과 흡사하다. F.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Duke Univ.Press, 1991), pp.220-222.

29) 인지심리학은 정보처리 방식을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한다. 상향식 인지과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극(만남, 경험)에서 출발하여 전체적 구성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자료기반 인지방식이라 할 수 있고, 하향식 인지과정은 기저장된 지식(전체)이 특정한 세부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지식(개념)기반 인지방식이라 할 수 있다. Ronald W.Casson, 같은 글, pp.438-439.

30) 그들, 그때, 거기와 같은 직시표현은 직시의 중심인 나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며, 이 거리는 친밀성이나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중심적 공간조직은 지리적 거리와 친밀감의 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

협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원인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의도적인 전경화, 호오관념에 근거한 공간의 예각화는 타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다. 그래서 “그 이념의 세계”, “저 북방 나라”(461), “저 레닌의 후계자들”(475)과 같은 직시에서 관형사 ‘그’나 ‘저’는 정보가 인식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이런 직시표현은 서사 정보에 대한 서술자의 특정한 가치나 감정을 언어적으로 그려내고,³¹⁾ 이런 가치나 감정을 독자들이 공유하도록 인식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우사냥>의 높은 빈도의 직시표현도 서술자(작가)와 피서술자(독자)의 상호연관을 조장하면서 작중상황에 대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려는 수사적 전략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술자의 하향식 정보처리가 러시아의 세부적인 공간정보나 장소정체성을 배경화한다는 점, 삶과 환경의 감각적 자질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그 수사적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4. 범주적 대인지각과 마음읽기

<여우사냥>에서 하향식 정보처리는 대인지각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상향식 대인지각이 개개인이 지닌 세부적 자질을 확인함으로써 개별화를 촉진한다면, 하향식 대인지각은 현저한 개념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성별, 인종, 연령 등을 결정함으로써 범주화를 촉진한다.³²⁾ <여우사냥>에서 서술자는 볼로자와 유라 등 러시아 안내인을 우연히 만났음에도

소』, 82-86쪽.

31) 지시관형사 ‘그’는 마치 지시봉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가리키듯이 언어에 의한 보여주기(showing)라고 이해된다. Jacob Mey, *When Voices Clash: A Study in Literary Pragmatics*, Walter de Gruyter, 1999, p.43 참조.

32) Susan T.Fiske, Shelly E.Taylor, 두뇌로부터 문화에 이르는 사회인지(신현정 역, 박학사, 2010), 106-107, 136쪽.

불구하고, 그들과의 동행이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의혹과 의구심을 품으며 그들의 행동을 살핀다. 서술자의 이러한 인지활동은 러시아 공간에 대한 예각화 전략처럼 기억 저장된 인지도식에 의해 규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술자는 퇴역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안내자를 붉은 군대(赤軍)의 일원으로 강력하게 범주화한다.

서술자가 여우사냥에서 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강한 공포를 가졌고, 힘들게 도착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외딴 통나무집(491)이었다면, 위협에 대처하는 인지전략으로서 범주적 대인지각이 유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세부적 정보보다 전체적인 범주정보보다 효과적으로 추출되고, 따라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이처럼 범주정보가 전경화될 때, 서술자와 안내인은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 관계로 대응한다. 왜냐하면 그 위협은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외집단과 관계하는 내집단의 문제, 즉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둘은 영락없이 퇴역 소련군의 포로”(489)이며 “여우란 바로 우리”(492)라는 것이다.

타인을 위협한 포식자로 전경화하기 때문에, <여우사냥>에서 도시나 거리의 감각적인 경험현실, 먹고 사는 일의 구체적 어려움은 인식의 전경에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인물의 목소리와 시점이 중심을 차지할 뿐, 불로자, 유라, 텡석부리 등 현지인의 심리와 태도, 목소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현지 사람들의 실제 삶에 무관심한 방문자의 단순한 관점에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와 그들,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전경화하여 그들에 대한

33) 사회물리적 환경에서 전경과 배경의 분리는 생존에 중요하다. 환경에 놓인 것이 포식자인가 아닌가 그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생존을 확보하는 진화론적 이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P.Stockwell, “Surreal figures”, J.Gavins and G.Steen(eds.),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Routledge, 2003), p.15.

몰이해를 강화하기 때문이다.³⁴⁾ 전날 가졌던 ‘감정’ 때문에 바로 보기가 “뒤편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로서 여우사냥에 나섰다(500) 것도 서술자가 자신의 오해에 대해 깊은 성찰을 보인 것이라 하기엔 너무 인색한 진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없고,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창조한 사람만의 것(489)이며, “항상 개인이 함몰되는 사회에 견디기 힘든 공포감과 저항감”(503)을 지녀왔다고 개별성을 강조하면서도 타자를 범주화하고 개인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봉쇄하는 것, 이것이 범주적 대인인식의 한계이다.

그런데 서술자 나는 친구에 대해 매우 복잡한 심리와 태도를 유지한다. 서술자 자신의 심리와 의식에 대해 방어적인 시선을 드러낼 뿐 아니라, 친구에 대해서도 복잡한 인지모형이 작동한다. 호숫가의 외딴 오두막에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던 서술자가 “친구의 무신경”(491)에 화가 난다고 할 때, 그는 친구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내집단 구성원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대학시절부터 친구와 나는 서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고 고등학교의 동창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울리지 못했을 사람”(462)이다. 그러나 “혁명을 이야기하며, 자본이 자본을 낳은 자본주의의 못된 속성을 매도”(472)하던 친구에게 “아직도 여전히 혁명을 신봉”(462)하느냐고 묻지 못한다. 또 친구에게 꼭 말하고 싶은 장소, 즉 ‘폐가’처럼 버려진 레닌의 은신처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친구가 집착을 보였던 그 세계는 “참담하게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다(474). “레닌의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지금”(497), 마르크시즘을 공부할 나라는 없을 것(498)이다. 따라서 “한 세계의 몰락”(476)을 새삼 환기하는 일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강요한 비극적 결과처럼, 친구에게 이데올로기적 책임을 ‘추궁’(499)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우정의 취약성을

34) 방문자와 원주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초점을 두게 마련이다. 원주민은 환경 전체에 몰입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태도를 지니지만, 방문자의 관점은 단순하기 때문에 원주민은 마치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푸 투안, 『토포필리아』(이옥진 역, 예코리브르, 2011), 104-108쪽.

고스란히 드러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친구에게 건넬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념과 우정 사이에서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 서술자에게 친구는 내집단이면서 외집단이다. 서술자가 친구에 대해 복잡한 태도와 심리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상과 실천의 괴리에 괴로워한 친구는 어떤 노선에도 가담할 수 없는 이상주의자(498)라고 평가하는 것이다.³⁵⁾

하향식 인지방식이 서술자의 대인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서술자는 러시아 혹은 외집단에 대해 편향적인 감정, 특히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며 이 지배적 감정은 타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경계하는 행동특성에 이른다. 러시아의 국체 혹은 레닌 이데올로기를 절대타자로 간주하고, 그들이 강요한 비극적 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서술자의 인지적 편향은 우리가 그들을 보는 방식만을 규정할 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서술자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³⁶⁾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서술자는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에 장악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인의 내면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고자 한다. 마음이론(Theory of

35) 외집단 구성원과 달리 내집단 구성원은 높은 정보복잡성을 지닌다. 내집단 구성원을 이해하는 인지모델은 매우 복잡하지만, 외집단에 적용되는 그것은 상당히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정보만으로도 외집단에 대해 극단적인 의견을 갖거나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위험한 포식자로 인식되던 러시아 안내자가 돌연히 ‘우리’에 포함되는 것도 이런 사정에 기인할 터이다. Susan T.Fiske, Shelly E.Taylor, 같은 책, 477쪽.

36) 감정들은 인지 및 행동과 상호작용한다. 인지적 평가와 고정관념이 이민, 역사, 지리적 요인의 부산물이라면, 감정은 이런 평가에서 유래하고 상호작용한다. 기본감정 가운데 특히 공포, 혐오, 불안, 분노, 수치, 증오 등 부정적 감정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한 행동을 동기화한다. 그래서 집단 사이의 감정은 과거 집단 사이의 경험과 집단 사이의 이데올로기에서 유래한다고 여겨진다. Susan T.Fiske, Shelly E.Taylor, 같은 책, 410-412, 452-453쪽.

Mind) 혹은 인지심리학자들이 동의어로 사용하는 마음읽기(mind-reading)는 목적, 욕망, 의도, 생각, 감정, 믿음 등의 견지에서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뜻한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마음읽기는 집단 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인류에 대한 진화의 응답이다.³⁷⁾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타인들의 다양한 관점을 주목하며 타인의 사고를 상상하는 능력은 인간의 진화된 본성의 하나인 셈이다.³⁸⁾

타인의 내적 삶과 동기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생존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안내인들이 제각기 단도를 뽑아 서로에게 자랑할 때, 서술자는 “의구심과 경계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들의 ‘행동거지’에 “아연 긴장”하며(487) 그들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고자 애쓴다. 볼로자의 엽총에서 철거덕 소리가 들렸을 때 서술자가 수행하는 마음읽기는 거의 인지전쟁이라 할 만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런 행동 중에도 나는 신중해야 한다고 나를 타일렀다. 그의 마음이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돌발적인 행동이 그의 망설이는 마음을 격발시키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나는 그의 눈에 안 띄게끔 몸을 일으켜 폐치가 옆으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중략...) 나는 폐치가가 꽤 관찮군 하는 표정을 지으며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490-491)

안내인들에 대한 의구심이 “인류 공동으로 이민족에 대해 갖고 있는 이질감”(485)에서 비롯된다면, 서술자의 의구심은 보편적 차원에서 포식자를 경계하는 안전규칙의 강조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연스러운 행동을 가장하는 서술자의 표정 ‘연기’는 국지적 차원에서 포식자에 대한

37) Lisa Zunshine, *Why We Read Fiction: Theory of mind the novel*(Ohio State Univ.Press, 2006), pp.4-7.

38) Brian Boyd, *On the Origin of Stories*(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Press, 2009), pp.141-149.

예방조치라 할 만하다.

서술자의 표정 연기는 자신의 의도를 감추거나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 곧 타인이 잘못된 확신을 갖도록 기만하는 행위이며, 타인의 의도보다 한 수 앞서겠다는 의도의 산물이다. 이는 서술자 자신에 대한 타인의 마음읽기를 메타적으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내자들과 인지적 군비 경쟁을 펼친다고 할 수 있다. 서술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때와 장소에 놓였다면, 그의 마키아벨리적 지능은 위협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방어이자 공격 무기일 수 있다.³⁹⁾

두려움은 위협에 대처하는 필수 보호장치이고, 경계심은 위험한 세계에서 생존 동력이다.⁴⁰⁾ 그러나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두려움은 외부의 다른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능력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⁴¹⁾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 안내자의 내면에서 ‘악의’(487)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타인의 존재하지 않는 의도를 추론하려던 서술자의 마음읽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39) 타인의 생각, 감정, 동기, 의도, 확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려는 인지적 군비경쟁은 사회적 지능의 출현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지능가설은 타인의 마음을 조작하고 속이는 등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의미로 마키아벨리적 지능가설과 연관되지만, 인간의 독특한 마음이론은 경쟁뿐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항하여 긴밀히 협력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Brian Boyd, 같은 책, pp.141-142, 276-277.

40) 사냥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냥물이나 독사를 덩굴로 오인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마음에 관한 전략적 정보는 생존에 중요하다. Brian Boyd, 같은 책, pp.130, 137. 99번의 잘못된 정보보다 단 한 차례로 맞게 되는 죽음이 더 큰 비용이다. 데이비드 M. 버스, 같은 책, 582쪽.

41) 도미니크 모이시에 의하면, 20세기 냉전시대에 세계는 상반된 정체모델로 정의되고 따라서 적을 식별하기 쉬웠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와해되고 세계화와 함께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자기인식에 감정이 개입되는데, 대표적 감정은 공포, 굴욕, 희망이다. 정체성의 문제로 제기되는 감정 마찰은 지정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모이시는 주관적 감정과 지정학적 갈등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감정의 지도그리기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도미니크 모이시, 『감정의 지정학』(유경희 역, 랜덤하우스, 2010), 11-12, 21-22, 32-37, 140-141쪽.

5. 자유주의자의 취약성과 공간 전유

앞서 직시표현의 인지적 차원을 살핀 것처럼, <여우사냥>의 이야기는 ‘지금’의 ‘나’가 ‘그때’의 ‘나’를 회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술하는 나는 경험하는 나와 인식상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물을 만하다. 바로 여기서 서술자가 그려낸 인식의 지도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우사냥>의 결말부는 모든 의혹과 의구심, 불안과 공포를 떨친 서술자가 세계의 모든 것과 일체화되는 광경을 보여준다. 이런 놀라운 광경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푸슈킨 시집이다. 오두막의 구석 선반에서 텃석부리가 읽었을 푸슈킨 시집을 발견하고, 서술자는 불가사의하게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적 편향에서 벗어난다. 시집의 내용을 모르지만, “시집을 읽고 있는 사내가 흉악한 강도 따위로 돌변할 수는 없다”(494)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불안과 공포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며, 오두막 침상의 “음산한 살의의 냄새”가 농노들의 피땀이 섞인 “처절한 냄새”(484)로 바뀐 것처럼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변한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서술자의 새로운 믿음은 여전히 그가 놓인 물리적 환경의 자극, 사람과 장소의 속성과 무관하다. 그의 인식과 감정의 지도는 여전히 주체지향적이며, 시(인)과 강도를 경계짓는 주관적 인지도식을 표나게 드러낼 뿐이다.

그런데 시인과 강도의 분리를 예각화하는 인지모형은 전적으로 주관적 개별적인 모형으로 여겨진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작품 내에서 서술자가 수행하는 공간사유를 재고할 만하다. 여행도식에서 드러나듯, 서술자는 자신의 여행을 회상하면서 줄곧 한국과 러시아라는 국가 혹은 국체의 차원에서 사유한다. 그러나 고향이나 소유, 도시 등과 달리, 근대 국가는 직접적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없다. 따라서 서술자의 국가 공간에 대한 인식은 특정한 지식, 즉 언어와 정보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것이 분명하다. 특정 지식을 통해 국내와 국외의 장소에 특정한 의미를 귀속시키는 근대국가의 기획에 근거하기 때문에, 서술자의 인지모형은 문화모형인 것이다.⁴²⁾ 말하자면, 러시아가 우리에게 강요한 비극적 결과를 강조한 것처럼, 서술자는 국가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재구성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공간과 사람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도 서술자의 감각적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기획에 의해 내면화된 지식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을 남의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친구처럼 서술자도 한국의 억압적 근대화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시무시한 유신 시절” 병역문제로 고생을 겪은 ‘불행한 개체’이고, “사회계약을 거부”한 ‘변이종’(503)이라 자처할 때, 서술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같등한다고 할 수 있다. 형식과 방향은 다르지만, 그는 “자본주의의 못된 속성을 매도”(472)하는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한국근대화와 불화하고 따라서 마치 나라 없는 사람처럼 통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특정 장소의 감각적 세부보다 이념 차원에서 상이한 장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원인보다 결과를 주목하고, 예각화된 경계를 전경화하는 그의 하향적 인지모형은 개인적일 수 없다. 러시아 안내인에 대한 의구심이 이념의 신봉자인 친구와 무관하지 않음(487)도 같은 모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이념에도 소속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자의 취약성이 선연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개인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여야 한다면서도 외집단을 범주적으로 인식하는 한계와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시(인)이다. 서술자의 마음에 푸슈킨의 이름

42) 고향이나 도시와 달리, 근대국가의 공간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기 어렵다. 근대국가는 경계가 지어진 거대한 공간인 까닭에, 국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류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푸 투안, 『토폴로리아』, 156-159쪽. L.J.Davis, *Resisting Novels: Ideology and Fiction*(Methuen, 1987), p.64.

이 각인된 것은 시인을 기념한 미술관에서 앙리 루소의 그림 ‘재규어의 공격을 받는 말’을 보고 강렬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은 포식자 앞에 놓인 피식자의 생태적 운명이 아니라 앞서기의 원초적 기괴함이 갖는 현실성(467)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비현실의 현실성(예술)은 현실의 비현실성(역사, 이념)과 대척적인 관계에 놓인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헤치고 달려나갔다. 침엽수의 바늘잎들이 커다란 노처럼 하늘의 배를 짓고, 시(詩)가 꽃잎처럼 흩뿌러지며 향내가 대기에 가득 찼다. 나뭇가지가 팔을 벌려 우리를 받아들이는 곳에 대자연은 춤추고, 모든 삶은 호수의 거울 속에 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됨을 노래하는 세계가 거기에 있었다.(512-513)

“역사 이래” “태고의 정적”에 감싸인 무인지경의 원시림(499, 505)에서 생물과 무생물, 사냥꾼과 사냥물, 포식자와 피식자의 경계는 사라지고 인종, 문화, 국체도 무화된다. 풍부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숲은 부동(不動)의 세계이고 역사와 이념으로부터 차단된 세계이며, “유예된 시간” 속에 문득 현현한 “환상의 숲”(511)이다. 특정한 생태적 특질을 지니고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장소가 아닌 까닭에, 서술자는 해당 공간과 사사화(私事化)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⁴³⁾ 공간과의 사적 관계는 갑작스런 상황 변화를 유발하고, 사실의 풍경을 상상의 풍경으로 만든다. 이를 공간의 전유라 할 만하다. 공간을 전유하는 서술자의 의식에서 상상적 공간은 진짜 공간이다. 그래서 루소의 그림처럼, 숲은 모든 현실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미적 장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되는 숲은 실제 장소를 넘어 의도적으로 설

43) 이-푸 투안은 미로학습을 예로 들면서, 미로를 통과할 수 있을 때 무차별적인 공간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목적지, 즉 경로와 이정표를 지닌 장소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119-122쪽.

정된 장소(location)이며, 서술자의 공간 전유에 의해 재구성된 장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숲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기지의 미지’공간이 된다.⁴⁴⁾

<여우사냥>에서 서술자의 인식의 지도그리기는 최종적으로 도착공간의 전유에 이른다. 루소의 그림처럼 환상적인 세계가 현실성을 갖는다면, 감각적 현실세계는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인식의 지도에서 지금 여기의 서술자는 여전히 이념과 역사의 현실세계와 불화하며, 환상의 숲에서 보여진 존재론적 경계넘기는 서술자 자신의 취약성을 상상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것이 서술자의 인식의 지도그리기가 함축한 정치적 의미이다. 그 의미는 러시아 안내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친구의 운명과도 무관하며,⁴⁵⁾ 서술자가 러시아의 숲을 나르시즘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드러낸다.⁴⁶⁾ 달리 말해, 그는 자아를 포기하고 세계 속으로 융합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 개인의 인지모형을 투사한 것이다. 그 결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예각화된 인식은 모두가 하나라는 균일화로 해소되며, 미지의 기지라는 이데올로기적 단절은 기지의 미지라는 공간 전유로 해결된다. <여우사냥>의 역설은 이런 상상적 해

44) 장소의 소설적 사용을 로케이션이라 한다. 작가가 실제 지역(terrain)을 통제하고자 할 때, 그 지리적 공간은 특정한 목적에 기여하는 장소, 즉 로케이션 장소가 된다. 특정한 의미로 재구성된 장소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은 “기지의 미지(a known unknown)” 공간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먼저 공간을 기지의 것으로 만들지만, 그 공간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로 재구성된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 미지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L.J.Davis, 같은 책, pp.53-66, 83-86.

45) <여우사냥>의 결말을 두고, 서술자가 친구와의 연대감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친구와의 남성적 결속이 친구 아내와 이성애적 결합과 대립한다고 보면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미영, 「윤후명 소설연구-여로형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58-65쪽.

46) 프레드릭 제임슨은 상상력을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나르시즘적으로 세계를 이용하는 것, 자신의 것과 다른 경험에 대해 공감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눈 바 있다. Joseph Carroll, *Evolution and Literary Theory*, p.83.

결이 역사(이념)과 시(예술)라는 날카로운 경계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6. 맺음말

서사가 여러 분과학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서사연구에도 학제간 융합을 가능케 할 새로운 서사분석 방법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윤후명의 <여우사냥>을 대상으로 여행서사의 인지적 차원을 해명하고, 이로써 서사에 대한 인지서사학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고는 특히 작중인물이 세계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그 심적 표상을 인지전략 혹은 인식의 지도그리기로 간주하며, 그 지도그리기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목표지향적 활동이라고 전제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여우사냥>에서 서술자 나는 여행도식에서 배경과 경로 성분을 크게 주목한다. 동토지대를 넘어가는 서술자의 러시아 여행은 그의 관습적인 인지를 방해하는 비전형적 사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월경(越境)을 전경화한 것이다. 러시아의 광활한 벌판길을 이동하는 여우사냥도 서술자에게 비일상적 사건으로 여겨진다. 원근 거리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지모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확한 공간관계를 개념화할 수 없는 인물은 이동하는 내내 공포를 경험한다.

둘째, 우리/그들, 지금/그때, 여기/거기 등의 직시표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서술자는 자신을 직시의 중심으로 삼아 여행에서 직면하는 낯선 정보를 처리한다. 러시아가 한국인에게 비극적 결과를 강요했다는 인지적 평가로 볼 때, 서술자의 인지처리는 기저장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하향식 방식에 근거하고, 이런 하향식 정보처리가 현저한 직시표현의 근간임이 분명하다. 서술자는 하향식 인지과정을 통해 국체(國體)의 이데올로기적 단층, 한국과 러시아의 차이를 예각화하고, 이로써 이동경험에

수반된 인식의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셋째, 하향식 정보처리는 대인지각에서도 드러난다. 그 결과 작중인물은 외집단을 범주화하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리와 태도를 드러낸다. 범주적 대인지각은 위협하다는 인지적 평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편향에 이른다. 그래서 작중인물은 동행한 러시아 퇴역군인에 대해 지속적인 의구심을 품고 타인의 내면적 동기에 접근하려는 마음읽기를 시도한다.

넷째, 작중인물의 하향적 인지모형은 특정 지식, 즉 국내·외의 공간에 특정한 의미를 귀속시키는 근대국가의 기획에 근거하기 때문에, 서술자의 인지모형은 문화모형이다. 바로 여기에서 어떤 이념에도 소속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자의 취약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서술자는 사실의 숲을 상상의 숲으로 전유함으로써 자신의 취약성을 상상적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서술자의 인식의 지도그리기가 함축한 정치적 의미이다. 그러나 그런 상상적 해결이 시와 역사, 예술과 이념 사이에 날카로운 경계에 근거한다는 데 <여우사냥>의 역설이 있다.

참고문헌

- 김원희, 「문학교육을 위한 백신에 소설세계의 인지론적 연구」(『현대문학 이론연구』 41집, 2010), 310-326쪽.
- 김원희, 「강경애 『소금』의 개념적 은유 접근 방식」(『인문학연구』 41집, 2011), 340-363쪽.
- 데이비드 M. 버스, 『마음의 기원:진화심리학』(김교현·권선중·이흥표 역, 나노미디어, 2005), 55-58, 133-134, 540-542, 582쪽.
- 도미니크 모이시, 『감정의 지정학』(유경희 역, 랜덤하우스, 2010), 11-12, 21-22, 32-37, 140-141쪽.
-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소설』(태학사, 2006), 17-41쪽.
- 이미림, 「2000년대 여행서사 속의 근대극복과 타자적 사유」(『내러티브』, 15호, 2010), 26-29쪽.
- 이미영, 「윤후형 소설연구-여로형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58-65쪽.
- 이정모, 『인지심리학』(아카넷, 2003, 1판3쇄), 19-23, 105-107쪽.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1999, 초판2쇄), 15-19, 82-86, 119-122, 128쪽.
- 이-푸 투안, 『토포필리아』(이옥진 역, 에코리브르, 2011), 104-108, 156-159쪽.
- 장일구, 「은유의 문화적 구성 역학-『혼불』을 사례로 한 시론」(『시학과 언어학』, 15호, 2008), 135-167쪽.
- 최용호, 『서사로 읽는 서사학-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 프리드리히 옹거러·한스-요르그 슈미트, 『인지언어학개론』(임지룡·김동환 역, 태학사, 2010), 86-97, 179, 302-306, 319쪽.
- 피터 스톡웰, 『인지시학개론』(이정화, 서소아 역, 한국문화사, 2009), 23-

- 24, 36-37, 40, 43-44, 66-67, 73, 85-91, 140-141쪽.
- 하름 데 블레이, 『분노의 지리학』(유나영 역, 천지인, 2010, 초판 5쇄), 69-74쪽.
- Brian Boyd, *On the Origin of Stories*(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Press, 2009), pp.130, 137, 141-149, 276-277.
- D.Herman, *Story Logic*(Univ. of Nebraska Press, 2003), pp.1-7, 15, 331-332, 346-347.
- D.Herman, *Narrative Theory and Conitive Sciences*(CSLI, 2003), pp.21-22, 218-237.
- F.Jameson, “Cognitive Mapping”, C.Nelson and L.Grossberg(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Univ. of Illinois Press, 1988), pp.347-358.
- F.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Duke Univ.Press, 1991), pp.220-222.
- G.레이코프 · M.터너, 『시와 인지』(이기우 · 양병호 역, 한국문화사, 1996), 88, 135쪽.
- Jacob Mey, *When Voices Clash: A Study in Literary Pragmatics*, Walter de Gruyter, 1999, p.43 참조.
- Jean Matter Mandler, *Stories, Scripts, and Scences: Aspects of Schema Theory*(Psychology Press, 1984), pp.13-15, 35.
- Jens Eder, “Narratology and Cognitive Reception Theories”, Tom Kindt, Hans-Harald Müller(eds.), *What Is Narratology*(Walter de Gruyter, 2003), pp.278-293.
- Joseph Carroll, *Evolution and Literary Theory*(Univ.of Missouri Press, 1995), pp.1-3, 83.
- Joseph Carroll, *Reading Human Nature: Darwinism in Theory and Practice*(State Univ. of New York Press, 2011)(SUNY.Press,

- 2011, pp.6-9, 18.
- L.J.Davis, *Resisting Novels: Ideology and Fiction*(Methuen, 1987), p.53-66, 83-86.
- Lisa Zunshine, *Why We Read Fiction: Theory of mind the novel*(Ohio State Univ.Press, 2006), pp.4-7.
- M.M.Bakhtin, "The Bildungsroman and Its Signification in the History of realism(Toward a Historical Typology of the Novel)",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Univ.of Texas Press, 1986), pp.10-11.
- P.Stockwell, "Surreal figures", J.Gavins and G.Steen(eds.),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Routledge, 2003), p.15.
- Patrick Colm Hogan, *Cognitive Science, Literature, and the Arts*(Routledge, 2003), pp.44-45.
- Reuven Tsur,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Poetics*(Sussex Academy Press, 2008), pp.1-11, 33-34, 610-612.
- Ronald W.Casson, "Schemata in Cognitive Anthropology"(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12, 1983), pp.429, 438-439.
- Susan T.Fiske, Shelly E.Taylor, 두뇌로부터 문화에 이르는 사회인지(신현정 역, 박학사, 2010), 106-107, 136, 410-412, 452-453, 47쪽.

<Astract>

Cognitive Narratological Approach on the
Travel Narratives(2)
- Focusing on 〈Fox Hunting〉

Hwang, Kook-Myung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clarify cognitive mapping which represents information processing by the main character in travel narratives and consequentl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gnitive narratology. Fox Hunting by Hu-myung Yoon was analyzed in this research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ly, the character's cognitive strategy which illustrates the confident travel from South Korea to Russia foregrounds the two elements: ground and path.

Secondly, the character sharpens the ideological fault line through top-down processing and the character hereby deals with uncertainty accompanied with traveling experience.

Thirdly, the character's categorical personal perception shows both cognitive appraisal (danger) and emotional biases (anxiety and fear) and it reveals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at the character consistently watches out for others.

Fourthly, the character copes with vulnerability as a liberalist through appropriation from an actual forest to an imaginary forest. This reveals political meanings implied in narrator's cognitive

mapping.

Key Words : mind-reading, <fox hunting>, travel schema, travel narrative, sharpening, Hu-myung Yoon, cognitive mapping, cognitive narratology, cognitive psychology, foregrounding, deixis, appropriation, evolutionary psychology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4월 4일